

새천년을 기다려온 젊은 하나

‘내 고향 남쪽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가곡 ‘가고파’가 태어난 곳. 어린 시절부터 넓은 바다와 함께 큰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그곳 경남 마산에서 1973년 1월 16일, 1남 2녀 중 장남으로 저는 태어났습니다.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하시던 아버지와 늘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시던 어머니에게서 화목하게 자라난 저는 순하고 심성이 곱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온 저희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맞았었지만 두터운 가족애로 더욱더 명랑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려 힘썼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도 생활설계사로 출판사 외판원으로 맞벌이를 하시면서 남들보다 경제적으로는 힘들게 살았지만, 그때 배웠던 끈기와 인내력은 이제 사회라는 큰 바다로 향하려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진영이라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라는 말씀을 늘 해주셨으며, 이는 컴퓨터 사용이나 그 이외의 취미생활에 다른 이들 보다 훨씬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서울 명문여대 가정관리학과 출신이신 만큼 가정교육에 엄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올바른 젓가락질을 가르치시기 위해 콩 반찬만으로 젓가락질을 배우던 기억은 아직도 선하며, 그것을 기억할 적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르게 가르쳐주신 어머니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선택하기 힘들었던 제어기계학 전공을 선택하여 지금은 LG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첫째 여동생과, 작게는 한 약국의 약사로 크게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사회봉사활동을 평생하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둘째 여동생 또한 저의 자랑스런 가족입니다.

저의 학창시절은 팔방미인이라 불릴 정도의 다재다능함을 키울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절이었습니다. 학업에도 충실한 편이었지만 공부 외적으로 영어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납니다. 교내 영어동화대회 뿐만이 아니라 학교 대표로서 나아가서는 부산대표로 전국 중학생 영어연극대회에 참가하여 코리아헤럴드사 상을 수상하였을 때의 기억은 저의 작은 자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영어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지금도 자연스런 의사표현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영어 실력은 학창시절에 키웠던 작은 재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내 육상 선수로 활동하면서 원만하고 활동적인 교우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운동은 전혀 가리지 않고 즐기고 있으며, 땀을 흘리며 운동에 열중하는 동안 키웠던 자기제어능력과 건전한 정신은 지금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강한 책임감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학시절은 그간 쌓아왔던 많은 재능들을 한번 더 검증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농구와 통기타 동아리에서의 활동은 저의 여가시간 활용과 폭넓은 교우관계의 밑거름이었으며, 동문회와 과 학생회에서도 요직을 맡으면서 책임감과 리더십을 더욱 키웠습니다. 대학시절 가장 소중했던 기억은 두 번의 어학연수와 다양한 해외

체험이었습니다. 아버님과 동행하여 방문한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의 경험은 국제사회에서의 자세한 상거래과정을 몸소 체험하였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1년간의 어학연수와 학교에서 선발되어 다녀온 러시아 극동주립대학에서의 단기어학연수는 단순한 어학연수의 차원을 넘어 세계화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게된 더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루에 한번 이상 컴퓨터 모니터를 보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컴퓨터와 친숙합니다. 오락에서부터 일반 사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까지 무난하게 즐기고 다룰 수 있는 것이 특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가시간에는 바둑 TV를 즐겨 시청합니다. 초등학교시절 아버님을 이겨보겠다는 철없던 욕심으로 시작한 바둑이 이제는 건전한 취미활동을 넘어서 대인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은 체력단련을 위해 헬스클럽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도 저의 자랑할 만한 취미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저의 생활신조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입니다. 사람에게 늘 기회가 오는 법이지만 인류가 ‘시간’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는 이상 똑같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때 그때의 주어진 기회와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전혀 후회 없이 살아 오진 않았습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했으며, 미래에는 더욱 저의 가치관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터넷광고와 귀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좋은 기업 이미지와 장래성 때문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산뜻한 기업이미지와 젊음을 한껏 발산할 수 있는 귀사의 인재상은 저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귀사의 이미지는 국제화에 맞게 키워온 제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 다 주었습니다. 대학시절 유달리 마케팅과 경영전략 등의 과목에 가졌었던 남다른 관심과 탁월한 어학능력은 기획부분이나 해외영업 업무에 아주 적합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선 이상 무엇을 더 주저하겠습니까? 저에게 주시는 한번의 기회가 최선의 선택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의 경험들로 인해 나이 면에서 사회로의 진출이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속했던 ‘학교’라는 울타리는 이제 첫 걸음마를 내딛는 ‘사회’에 비한다면 병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배우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한다는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이젠 학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더 많은 실전 지식을 습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가졌던 작지만 유용했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배우는 젊은이’, ‘늘 도전하는 젊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